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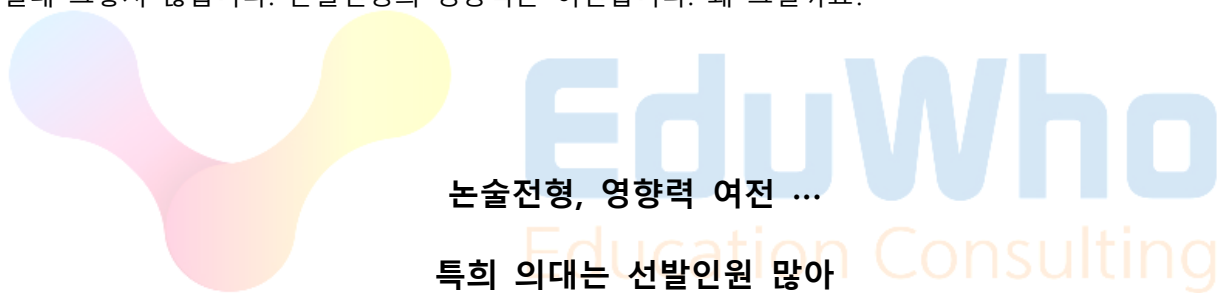
## CHAPTER 2. 수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 4) 역전의 명수, 논술전형!

고려대가 201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을 폐지했습니다. 학생부 관리가 미흡했던 수험생,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려웠던 특목고 학생들, 학생부위주 전형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재수생들에게 이 소식은 청천 벽력과도 같았지요. 논술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이 더 욱 좁아졌기 때문 입니다.

이와 함께 '논술전형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고려대 논술폐지와 대입에서 논 술전형의 비중 축소. 이것은 '논술전형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논술전형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2018학년도 대입에서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전체의 3.7%에 불과했 습니다. 40%에 달하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였지요.

 주요 15개 대학 2018학년도 수시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 선발비율

전형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특기자(실기포함)
선발비율 (인원)	9.6% (2,770명)	58.3% (1,6910명)	22.3% (6,478명)	9.8% (2,827명)

<표1>은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홍익대)이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어떤 전형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지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주요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무려 6478명이나 됩니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22.3%에 달하지요. 이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즉, 전체 대학에 서의 논술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적을지라도 서울 주요대학으로 좁혀보 면 논술전형은 상위권 대학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전형인 것입니다.

고려대가 논술전형을 폐지함에 따라 주요대학에서 논술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많이 줄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다른 대학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적지 않은 인원이 논술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주요대학 의대를 노리는 학생이라면 논술전형 준비는 필수입니다. 성균관대 치의예과, 연세대 치·의예과, 한양대의 의예과 등의 논술전형 모집 인원은 2017학년도에 비해 2018학년도에 오히려 그 수가 증가했 습니다. 대부분의 의대가 2018학년도에 논술전형으로 모집정원의 40% 이 상을 선발했을 정도입니다. 즉, 서울 주요대학의 의대 수시모집을 노리는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반드시 논술전형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III-2 2018학년도 주요대학 논술전형 선발방법**

No	대학	전형명	선발방법
1	서울시립대	논술	1단계: 논술 100 2단계: 논술 60 + 학생부(교과)40
2	서강대	논술	논술 80 + 학생부(교과)10 + 학생부(출결·봉사)10
3	경희대	논술우수자	논술 70 + 학생부(교과)21 + 학생부(출결·봉사)9
4	연세대	일반	논술 70 + 학생부(교과)20 + 학생부(출결·봉사)10
5	이화여대	논술우수자	논술 70 + 학생부(교과)30
6	한국외대	논술	논술 70 + 학생부(교과)30
7	한양대	논술	논술 70 + 학생부종합평가 30
8	건국대	논술우수자	논술 60 + 학생부(교과)40

9	동국대	논술우수자	논술 60 + 학생부(교과)20 + 학생부(출결·봉사)20
10	숙명여대	논술우수자	논술 60 + 학생부(교과)40
11	성균관대	논술우수	논술 60 + 학생부(교과)30 + 학생부(비교과내용 전반)10
12	중앙대	논술우수자	논술 60 + 학생부(교과)20 + 학생부(출결·봉사)20
13	홍익대	논술	논술 60 + 학생부(교과)40

논술전형은 학생부와 논술고사 성적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표2>를 살펴보면 주요대학에서는 논술고사의 반영비율을 60~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논술전형의 핵심은 '논술고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능 력이 남다르거나 수학·과학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논술고사 비중이 높은 서울 시립대나 서강대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의 경우 1단계에서 논술고사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서강대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8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30%인 대학이나 40% 인 대학 모두 학생부의 실질적 인 반영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논술전형에서 학생부의 비교과는 출결 및 봉사활동 내역만 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의 경우, 반영방식을 살펴 보면 지원자들에게 부여되는 기본점수가 높는데다 학생부 등급간 점수 차이가 적어 이 역시 높은 변별 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 어 연세대는 일반전형(논술전형)에서 내신 1등급과 4등급의 점수차가 0.6 점에 불과합니다. 이 점수 차이는 높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논술고사 성적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 니다. 다시 말해 논술전형에서는 논술고사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이지요.

표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성균관대와 한양대 논술전형에서 비교과를 평가할 때 출결 및 봉사활동 내역이 아닌 종합적인 비교과 활동을 평가한 다는 것입니다.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차별화된 비교과 활동을 해온 학 생이라면 이 두 대학의 논술전형을 고려해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었던 것입 니다.

## 수능도 반드시 준비해야

그렇다면 논술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논술고사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능 학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

학들은 수능 최 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대는 2018학년도 논술전형에서 '국어, 수학, 탐구(2과목)의 등급합 7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 동우수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중 2개영역 등급합 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지요. 즉 수능에서 탐구영역 두 과 목을 각각 2등급씩 받고, 국어와 수학은 모두 4등급을 받더라도 연세대 학 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서는 탐구영역 두 과 목을 조합해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중 2개영역의 등급합 4'라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지만 '국어, 수학, 탐구(2과목)의 등급합 7이내'인 논술전형의 최저학력기 준은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탐구영역 두 과목에서 각각 2 등급을 받았다면, 나머지 수학과 국어는 등급합을 3 이내로 맞춰야만 합격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술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수능 영역별 편차가 심한 학생이라면 '등급합'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 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2개 영역 등급합 4'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어영역은 1등급을 받아놓고 다른 영역에서 3등급을 받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2개영 역 2등급'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역간 성적 편차가 두드러질 경우에만 '등급합'을 수능 최저학력기 준으로 두고있는 대학에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 이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능 실력을 다 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수능 학습을 꾸준히 하는 한편 논술고사 준 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능도 반드시 준비해야

그렇다면 논술전형을 준비할 때에는 논술고사에만 집중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능 학습'을 병행해야 합니다. 최저학력기준을 충 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대 학들은 수능 최 저학력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세대는 2018학년도 논술전형에서 '국어, 수학, 탐구(2과목)의 등급합 7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연세대 학생부종합전형(활 동우수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중 2개영역 등급합 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지요. 즉 수능에서 탐구영역 두 과 목을 각각 2등급씩 받고, 국어와 수학은 모두 4등급을 받더라도 연세대 학 생부종합전형(활동우수형)에서는 탐구영역 두 과 목을 조합해 '국어, 수학, 탐구(2과목) 중 2개영역의 등급합 4'라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 지만

‘국어, 수학, 탐구(2과목)의 등급합 7이내’인 논술전형의 최저학력기 준은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탐구영역 두 과목에서 각각 2 등급을 받았다면, 나머지 수학과 국어는 등급합을 3 이내로 맞춰야만 합격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술전형의 최저학력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입니다.

수능 영역별 편차가 심한 학생이라면 ‘등급합’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2개 영역 등급합 4’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영어영역은 1등급을 받아놓고 다른 영역에서 3등급을 받는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2개영 역 2등급’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영역간 성적 편차가 두드러질 경우에만 ‘등급합’을 수능 최저학력기준으로 두고 있는 대학에 지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등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이런 대학들은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수능 실력을 다 질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면 수능 학습을 꾸준히 하는 한편 논술고사 준 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논술전형에서 ‘대박’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논술전형을 고려하는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특성상 내신 성적은 잘 받지 못했지만 비교 과 활동은 꾸준히 해온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경우 더욱 그렇지요. ‘비 록 내신 성적은 3등급이지만, 차별화된 비교과 활동을 몇 가지 꼽을 수 있으니 학생부종합전형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을 넘어간다면 3학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논술전형’으로 확실히 마음을 정하고 이에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울 주요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1등급에서 2등급 초반대로 상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 전형에 쏠림 현 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비교과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까지도 잘 관리해 온 학생들이 대거 주요대학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한 탓에 내신 등급 합격 선도 급격히 올라간 것이지요. 비교과에 강점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내신 성적을 극복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 성적이 2등급 중반 이하로 예상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논술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신에서 최소 몇 등급을 받아야 서울 주요대학 논술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학생부의 실질반영비율이 크지 않으니 내신은 몇 등급이어도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신 2~4 등급대의 학생들이 이 논술전형으로 서울 주요대학에 진입할 확률이 큼니다. 그 이유는 대학 별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할 때 정하는 '등급간 점수 차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를 예로 들어봅시다. 2017학년도 서울시립대의 논술전형 만점은 1000점. 여기서 학생부교과 성적의 반영 점수는 400점이었습니다. 평균석차 1등급인 지원자는 400점을 받습니다. 1.1~2.0등급은 399점, 2.1~3.0등급은 398점, 3.1~4.0등급은 397점, 4.1~5.0등급은 396점을 받지요. 즉, 1.0등급과 5.0등급의 점수차이가 4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5.1~6.0등급은 39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받는 점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2등급대와 3등급대의 내신 성적을 받은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서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지만, 내신 성적이 5등급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이를 극복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술전형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면 3학년 1학기에는 수능 학습에 매 진하면서 논술고사 준비를 틈틈이 하는 한편, 내신은 4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논술전형 대비전략을 짤 때에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모의평가 전 과 후' 계획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치르면 정시로 어떤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가 어느 정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6월 모의평가 전에는 논술고사보다는 수능에 집중하고, 대학별 논술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하고 싶다면 2~3년치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6월 모의평가 전에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5월부터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의논술입니다. 모의논술 운영 방식은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논술고사와 동일하게 대학 강의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별도의 시험 없이 문제와 해설, 모범 답안을 제 공하기도 하지요. 어떤 방식이든 모의논술을 통해 올해 치러지는 논술고사의 출제 경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기출문제와 모의논술에서 출제된 문제를 비교해보면 논술고사의 출제경향을 이해할 수 있고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자신이 정시모집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하는 대학은 정시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보다 합격선이 높아야 한다고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해버리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정시모집으로 서울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합격선이 낮은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지원한 뒤 합격해버리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정시모집으로 어떤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뒤 해당 대학보다 합격선이 높은 대학에 수시모집 논술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받은 모의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마쳤다면 여름방학 전에는 '어떤 대학 논술전형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자신의 목표 대학 논술고사 유형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후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문제풀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논술문제는 10번 이상 쓰고 고치는 연습을 반복하며 △문제 파악 능력 △시간 배분 능력 △정교한 답안 작성 능력 등을 길러야 합니다.

모의논술에 응시하려 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모의논술 채점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의논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실제 대입 논술고사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의논술에서 출제된 문제가 실제 논술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되지 않으므로 모의논술 성적이 곧 실제 논술고사 성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실제 논술고사는 모의논술과 달리 더 많은 변수가 존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논술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일은 요원한 것입니다.

실제 논술고사에서는 어떤 주제가 제시되느냐에 따라 지원자의 문제해결역량이 모의논술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등 변수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모의논술을 실시하는 목적은 지원자에게 출제경향을 예고하고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것에 있으므로 출제경향과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실제 논술고사에 성실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연계 '수능과 논술고사 병행'**

**인문계 '대학별 기출문제 집중'**



그렇다면 이제 계열별 논술대비 방법을 각각 살펴봅시다. 대학별로 자연 계 논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학 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보는 경우'와 '수학 논술만 보는 경우'가 그것이지요.

자연계 논술의 경우, 수능과 충분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학 고난도 문제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풀어낼 수 있고 과학 개념을 꼼꼼히 정리해놓은 학생이라면 논술고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자연 계 수리 및 과학 논술이 수능 수학영역의 고난도 문제와 그 접근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수학의 경우, 모의고사나 기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논리적인 방법으로 풀이 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것 자체가 논술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 역시 수능 선택과목과 연계해서 과학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교과 관련성이 높은 자연계 논술에 비해 인문계 논술은 특정 교과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처럼 수능 학습을 하면서 함께 논술고사를 준비하기보다 따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기보다 학교별 기출문제를 토대로 '나에게 꼭 맞는 논술고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인문계열 논술고사는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치러집니다. 건국대는 2017학년도 논술전형 인문2에서 수학 문항을 출제한바 있습니다. 특정 학 교예선 영어 제시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도표, 통계자료 등이 포함된 제시문을 해석하는 유형이 추가되는 학교도 있지요.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인문계열 학생은 대학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어떤 대학 논술고사를 잘 볼 수 있을지를 파악해 논술고사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수학에 강점이 있는 인문계열 학생이라면 수학 논 술을 함께 보는 대학을 고려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에 서 출제되는 수학 논술은 자연계 수학 논술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고 △통계 △확률 △경우의 수 △비례식 △추론 등 제한된 범위에서 출제되기 때 문에 수학 교과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계, 인문계를 막론하고 논술고사의 핵심은 '논리적인 분석력'입니다. 최근에는 배경지식을 많이 알아야 잘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주어진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지요.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교과서를 읽더라도 글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을 확장시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정답을 맞히는데 급급해 하기보다 '올바른 풀이'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풀이 과정을 상세히 쓰고 단계별 풀이 속에서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내가 부족한 개념은 무엇 인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길 바랍니다.



## 학년별로 어떻게 대비?

### 지원 전엔 반드시 일정 확인을!

고1 학생들은 아직 대입까지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논술의 기본기부터 닦아도 충분합니다. 논술 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어휘력, 논리적인 분석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로 풍부한 독서를 통해 길러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서는 올바른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흥미를 갖고 있던 분야의 책 중 쉬운 내용의 책부터 읽어 나가면서 점점 수준을 높여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논술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교과와 관련된 학습입니다. 교과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책을 읽으면 학교 교과목에 흥미를 갖게 되고 교과 학습 내용에 대한 보충·심화 학습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2 학생들은 통합형 논술에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대학 인문계열의 경우 교과 능력과 함께 창의적인 사고력과 분석 능력, 독해력을 평가할 수 있는 소논제를 2~5개 정도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계열은 최근 들어서 교과서에 나오는 연습문제를 출제하는 대학도 있을만큼 난이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수능이 아니라 논술이기 때문에 중간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논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각 계열별 교과 과목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고1, 2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시사 문제'입니다. 논술 문제에서 직접 시사 이슈를 묻는 것은 아니지만 시사 이슈는 논술뿐 아니라 수능, 면접 등에 서도 필요한 학습 영역입니다. 한 가지 시사이슈를 놓고 여러 교과의 통합된 지식을 통해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제시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신문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도표, 통계 자료, 그림 등을 보면서 분석하는 능력도 길러 두어야 합니다.

3학년이 된 후 논술을 준비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여 논술 전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논술 시험은 방대한 배경 지식과 확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 방법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최근 논술고사는 그림, 통계 자료, 도표 등 다양한 형태의 제시문을 주기 때문에 텍스트뿐만 아니라 시각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도 길러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논술형 문제와 함께 요약형 문제도 빈번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200~500자 내외로 요약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길 바랍니다.

논술은 첨삭지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나 EBS교재 내 출제로 논술문

제가 점점 쉬워지면서 세심한 부분에서 점 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논술 학습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의 논술을 실시하고 교사나 강사 등에게 첨삭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삭을 받은 후에는 본인의 약점을 확인, 보완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당 문항에 대하여 글을 써보길 바랍니다. 그 후에 처음 썼던 답안과 새로 쓴 답안을 스스로 비교해서 차이점을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논술전형 지원을 최종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논술 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술전형의 경우 채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전형일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두 대학이 논술고사 날 짜가 겹칠 경우 모집인원을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전형으로 선발하는 '전체' 모집인원보다는 '학과별' 모집인원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전체 논술전형 모집인원이 1000명인 A대학과 800명인 B대학이 있다고 할 때, 수험생들은 A대학을 선호할 것이지만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의 모집인원은 A대학에서 10명인 반면, B대학에선 100명이라면? 당연히 B대학 해당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